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20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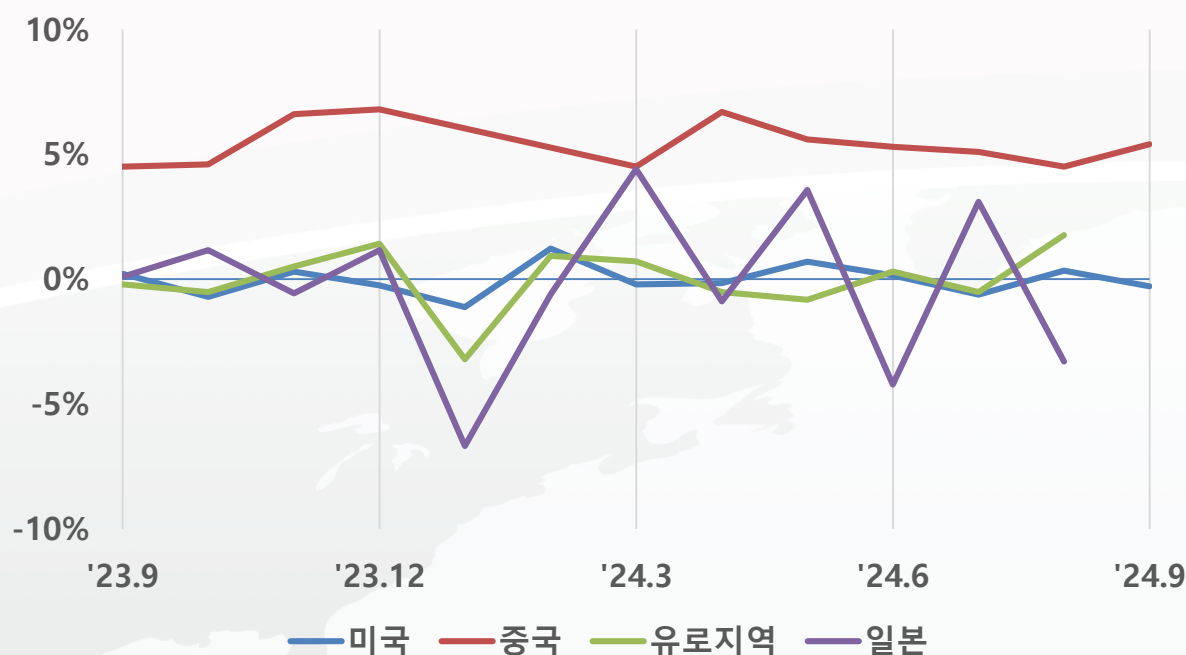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세계 경제동향

■ 주요국 경제동향 : 글로벌 경기둔화로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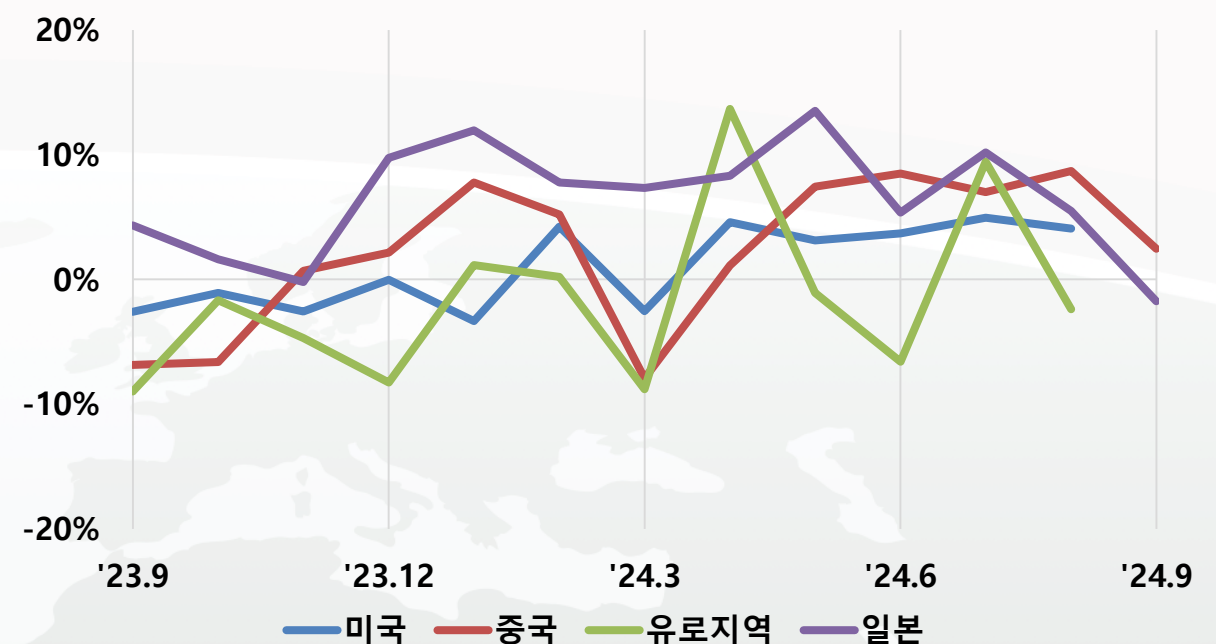
- **(미국)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등 전반적인 경기는 안정세 유지**
 - 9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소폭 감소($\Delta 0.28\%$),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9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25.4만명)은 전월(+14.2만명) 대비 확대 및 예상치(+14.7만명) 상회, 실업률(4.1%) 하락세 유지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2.4%로 6개월 연속 하락, 근원물가 상승률(+3.3%)은 전월 대비 소폭(0.1%p) 상승
- **(중국) '24년 경제성장률 목표(5%)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 9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5.4%)은 6개월만에 상승 반전, 소매판매 증가율(+3.2%)은 전월 대비(+2.1%) 상승
 - 9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5%)은 전월(+8.7%)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0.5%p 인하에 이어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대출우대금리)를 0.25%p 인하(10/21)
- **(유로존) 경기지표 소폭 개선되었으나 물가상승률 하락 등 전반적인 경기둔화세 지속**
 - 8월 산업생산 증가율(+1.8%) 큰 폭 상승,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7%로 크게 하락
- **(일본)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
 - 8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3.3% 감소, 소매판매 전월 대비 0.8% 증가, 9월 수출(엔화기준)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

전산업생산지수



주 : 전월 대비, 계절조정 기준.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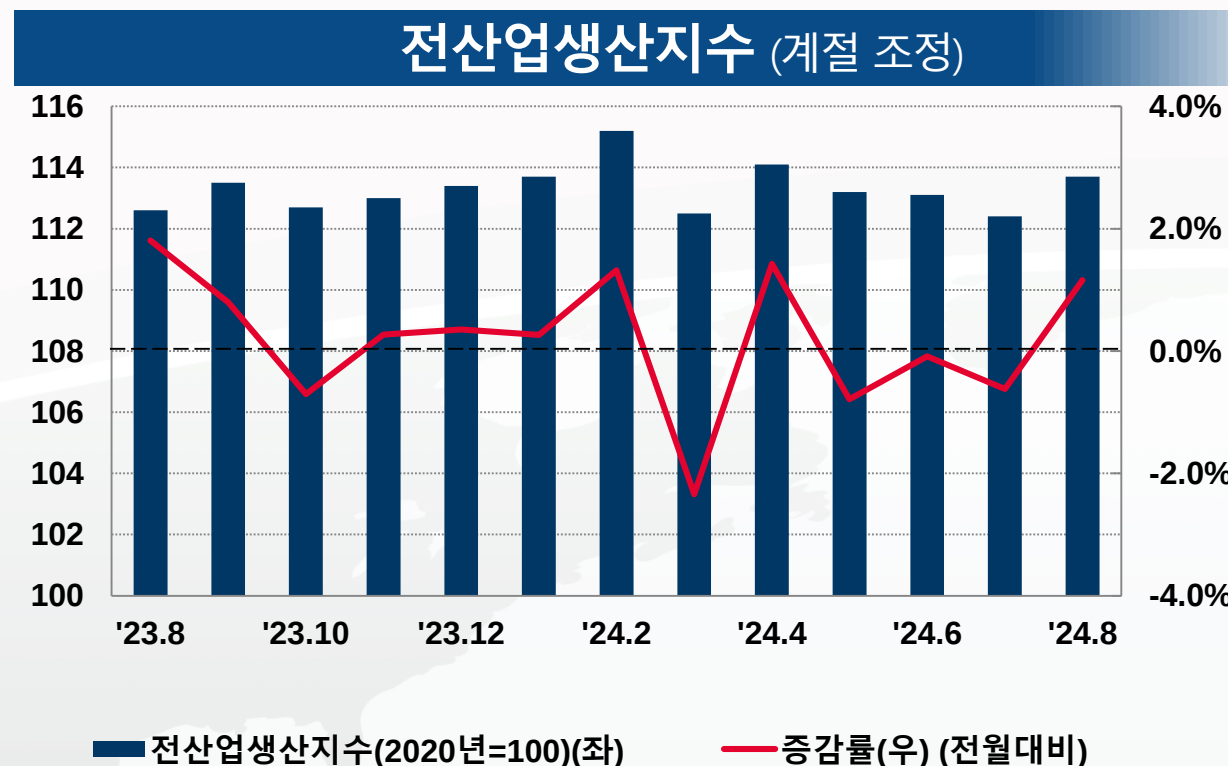
주 : 전년동월 대비, 원계열 기준. 중국(USD) 제외 각국 통화 기준
자료 : Bloomberg

■ 산업 활동 : 8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증가,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 (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2% 증가
 - (광공업 : +4.1%) : 통신·방송장비(△7.1%)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22.7%), 반도체(+6.0%) 등에서 증가
 - (서비스업 : +0.2%) : 정보통신(△4.3%)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증가
- (경기) 8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0.6p)는 경제심리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은 증가했으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1p 하락(기준치 100)

■ 고용 : 9월 고용률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 취업자도 14만 4천명 증가

- (고용률) 9월 15~64세 고용률(69.9%)은 30대, 40대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
- (취업자) 9월 취업자수(2,884만명)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운수및창고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 대비 14만 4천명 증가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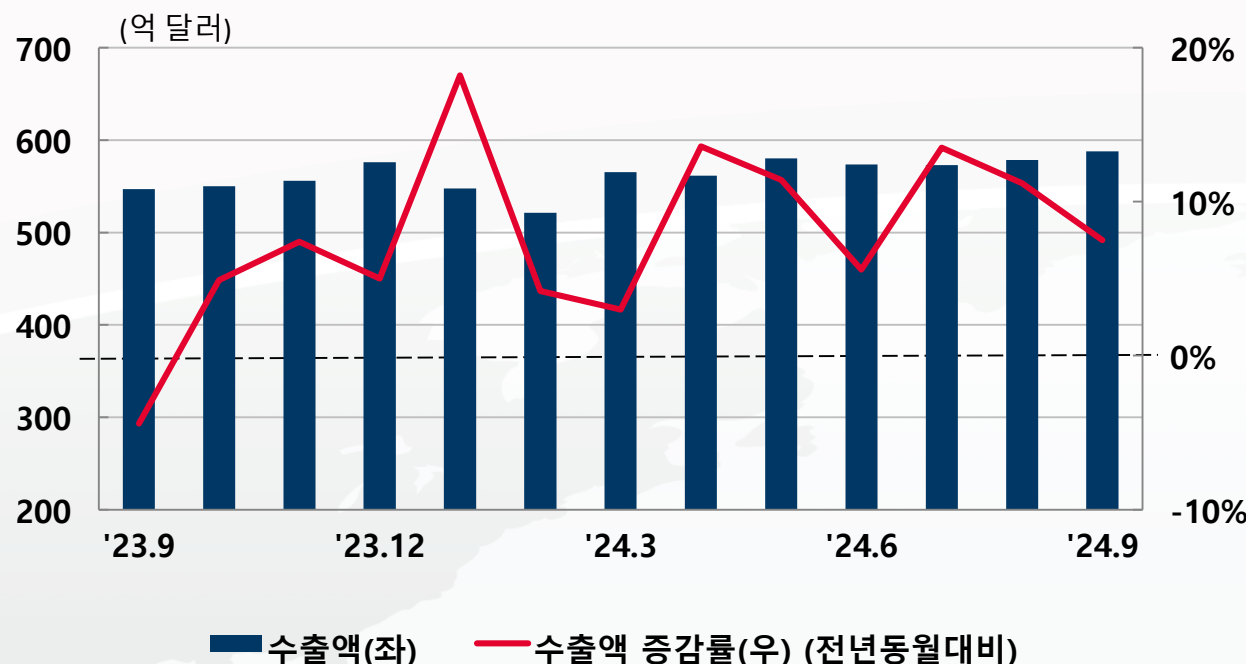
■ 수출입 :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 등 IT 품목 호조 지속으로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수출) 9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한 588억 달러, 미국·중국 수출 호조세 지속
 - 반도체(+37.1%), 컴퓨터(+132.0%), 무선통신 (+19.0%) 등 IT 품목 호조세 지속, 자동차(+4.9%)도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 중국(+6.3%)은 IT 수출 개선으로 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상회, 미국(+3.4%)도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경신
- (수입) 9월 수입은 유가 하락으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에 그침
- (무역수지) 전년동월 대비 30억 달러 개선된 66.6억 달러 흑자, 16개월 연속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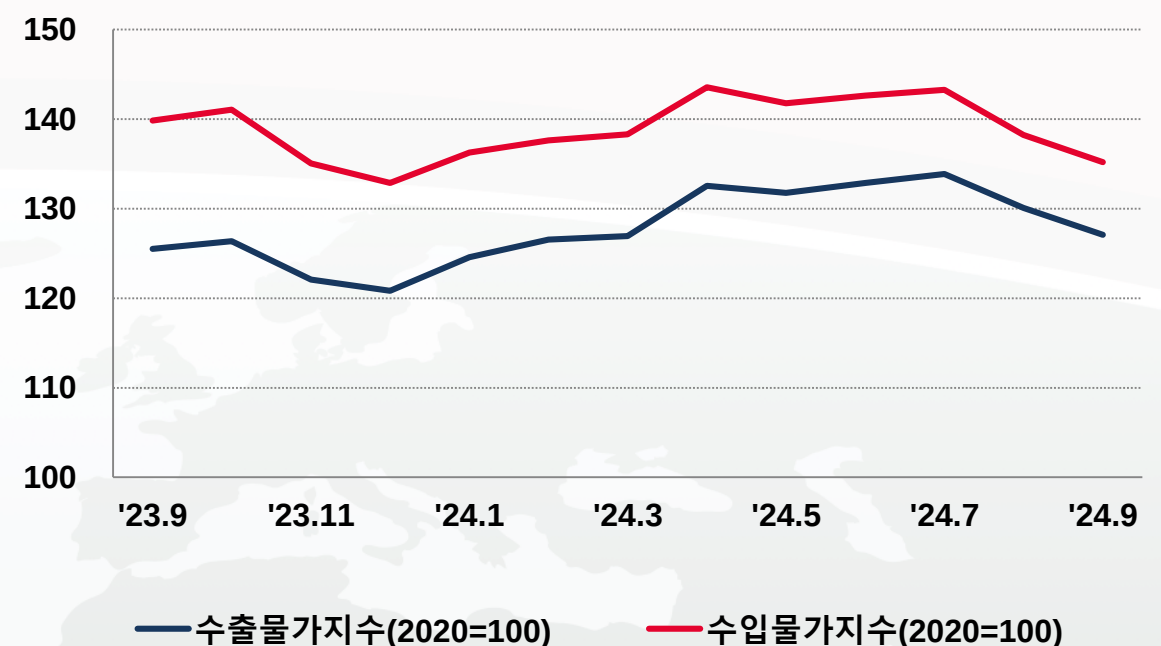
■ 교역 조건 :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입물가 전월 대비 하락 지속

- (수출물가) 9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 전년동월 대비 1.2% 상승
- (수입물가) 9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월 대비 2.2% 하락, 전년동월 대비로도 3.3% 하락

수출 추이



수출입 물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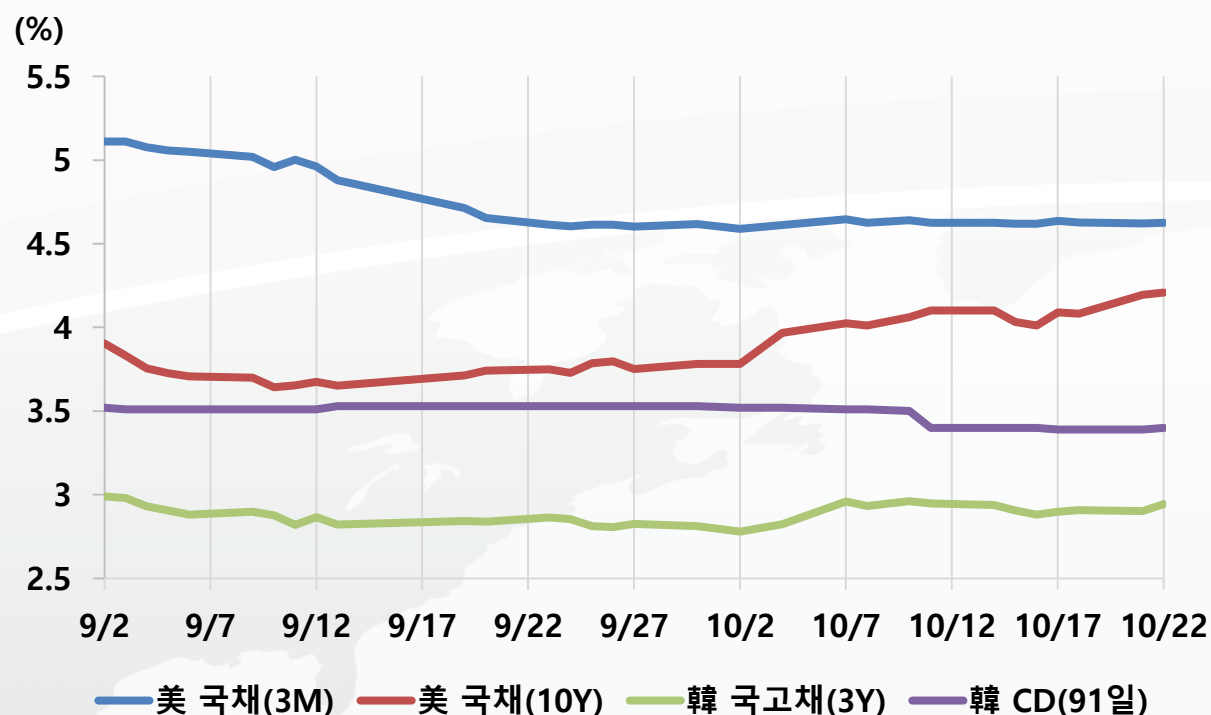
■ 금리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안정세 및 미대선 결과 불확실성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

- (미국) 미국채 금리(10년물)는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고용지표 안정세 등으로 연내 빅컷($\Delta 50\text{bp}$)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대에 따른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4.2%대로 크게 상승
- (한국) 국고채 금리(3년물)는 한은의 금리인하(10/11) 이후 미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9%대로 상승한 이후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환율 : 미금리 상승,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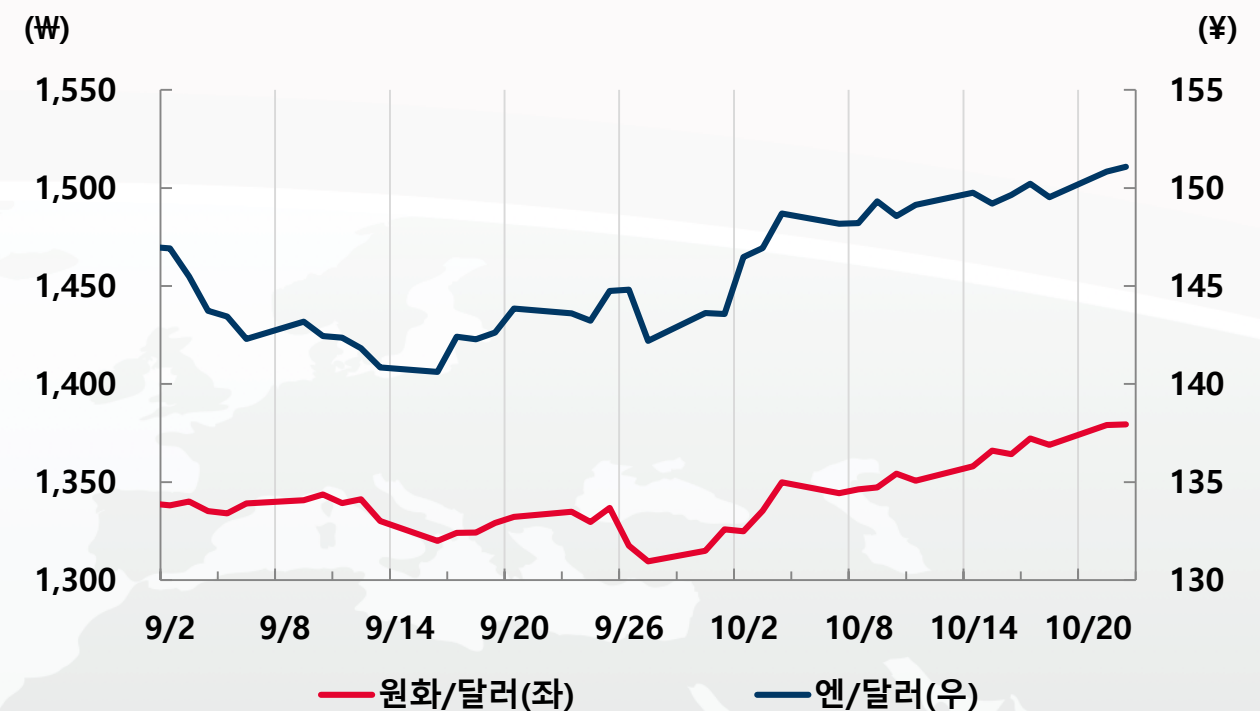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9월중 1,310원/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10월 들어 한은의 금리인하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확대 및 중동지역의 학전 우려 따른 미달러화 강세와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 등으로 1,380원/달러대로 급등
- (엔/달러 환율) 9월중 미달러화 약세로 140엔/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미달러화 강세 및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 등으로 150엔/달러 돌파

韓·美 채권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및 한국은행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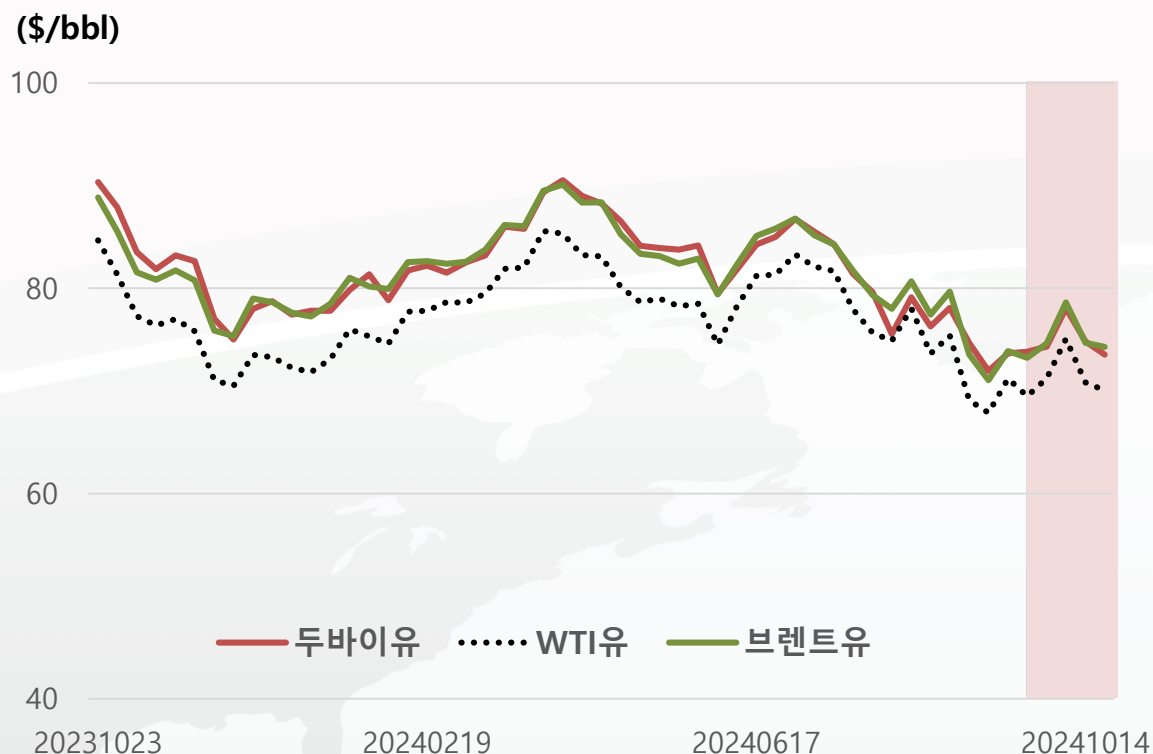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 유가는 중동 불안으로 70달러대에서 등반락, 천연가스는 수급 완화로 2달러 초반대로 하락

- (원유) 지속되는 중국 수요둔화 우려로 10월 들어 배럴당 70달러선으로 하락(두바이유, \$70.8/bbl, 10/1)한 이후 중동 불안 확대에 따라 배럴당 70달러 후반대(\$79.0/bbl, 10/8)로 상승했으나 10월말 리스크 완화로 70달러 중반대 기록
 -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저조와 중국 내 전기차 비중 확대 등 석유수요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 등 중동 불안 확대로 유가가 상승했으나, 실질적인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유가 상승폭 제한
- (천연가스) 10월 들어 냉방용 수요 감소, 천연가스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수급 완화에 따라 9월말 2달러 후반대(NYMEX, \$2.92/mmBtu, 9/30)에서 10월말 2달러 초반대로 하락(\$2.31/mmBtu, 10/21)
 - 10월 첫째 주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2.8%, 최근 5년래 평균 대비 5.1%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10월 13일 기준 유럽 천연가스 재고도 95%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제유가 추이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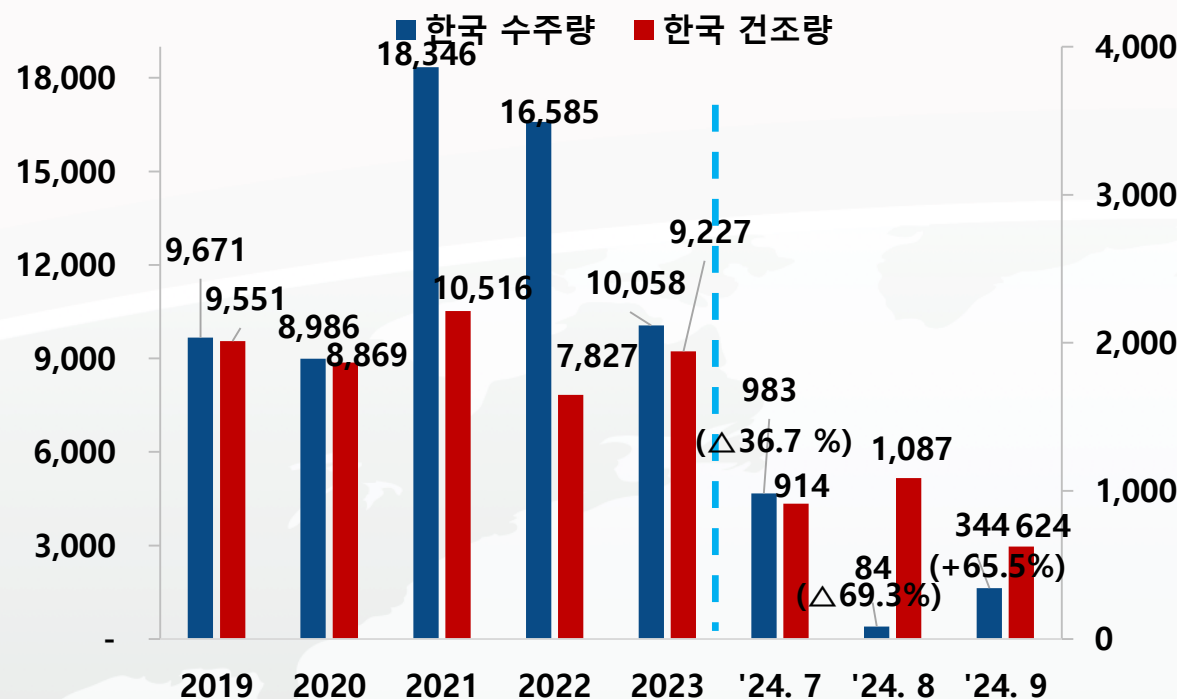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유가는 주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

■ 9월 세계 발주는 다양한 선종 발주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국내 수주는 점유율 감소 등 부진

- 9월 세계 발주는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가 이어졌으나, 상반기에 비해 발주세는 다소 감소 수준
 - 9월 세계 발주량은 289만CGT(전년동월 대비 △ 25.3%), 9월 누적 발주량은 4,976만CGT(전년동기 대비 +37.1%)
 - 9월 한국 수주량은 34만CGT(전년동월 대비 +65.5%), 9월 누적 수주량은 872만CGT(전년동기 대비 +18.0%)
 - 9월 한국 수주액은 12.1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90.59%), 9월 누적 수주액은 284.6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31.7%)
 - 9월 신조선 시장은 LNG선 등 고부가 선종을 비롯하여 탱커, 벌크선까지 다양한 선종이 발주되었으며 중국이 86%를 수주
 - 9월 한국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기존 우위 선종까지 대부분을 중국에 내주며 부진한 수주실적을 보임
- 9월 선박 수출은 고가의 LNG선 등의 인도가 증가하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
 - 9월 수출액은 23.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76.2%), 누적 수출액은 180.3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30.53%)
 - 9월 수출은 점차 고가의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의 인도가 증가하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임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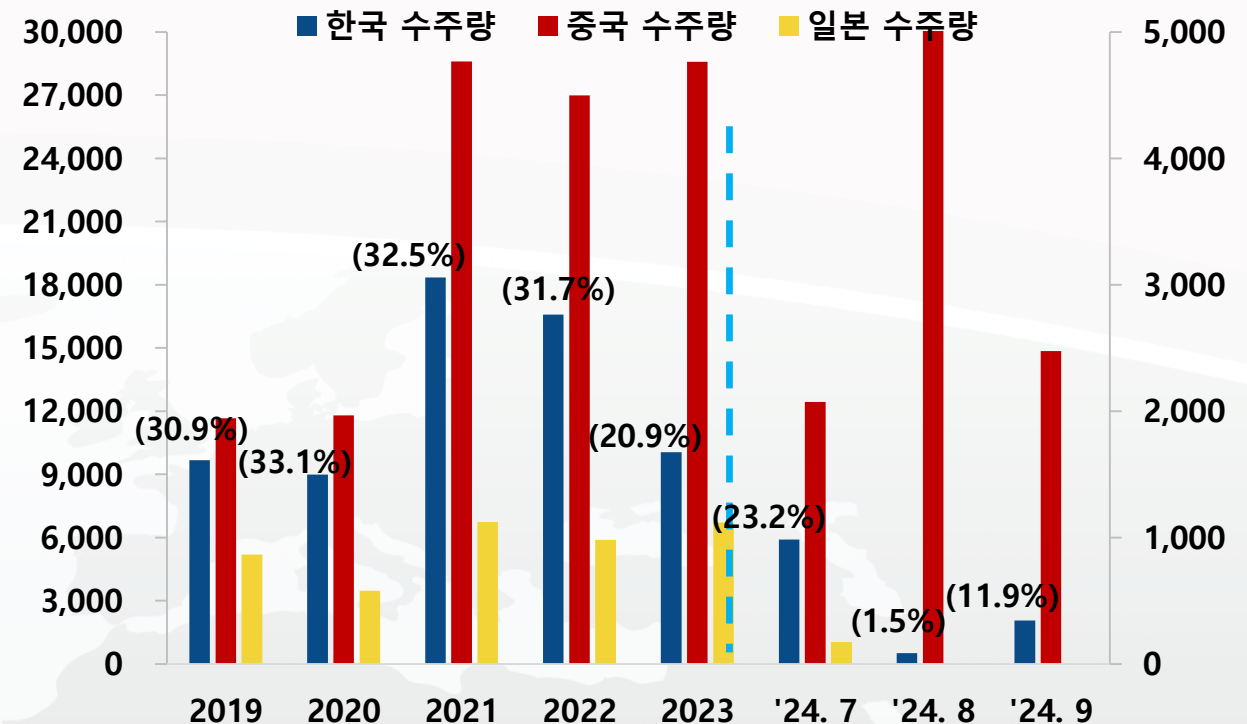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
자료 : Clarkson

한·중·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천CGT)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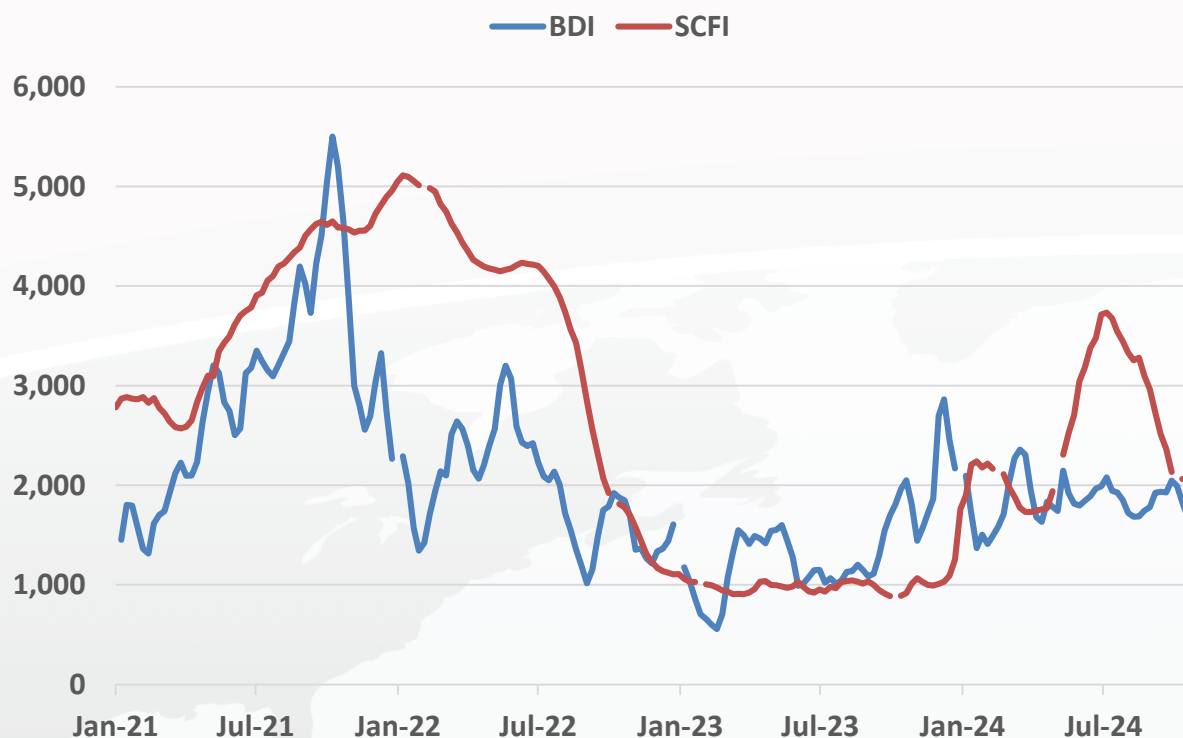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
자료 : Clarkson

■ 9월, 컨테이너선 운임은 많은 신조선 인도로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해운시장은 양호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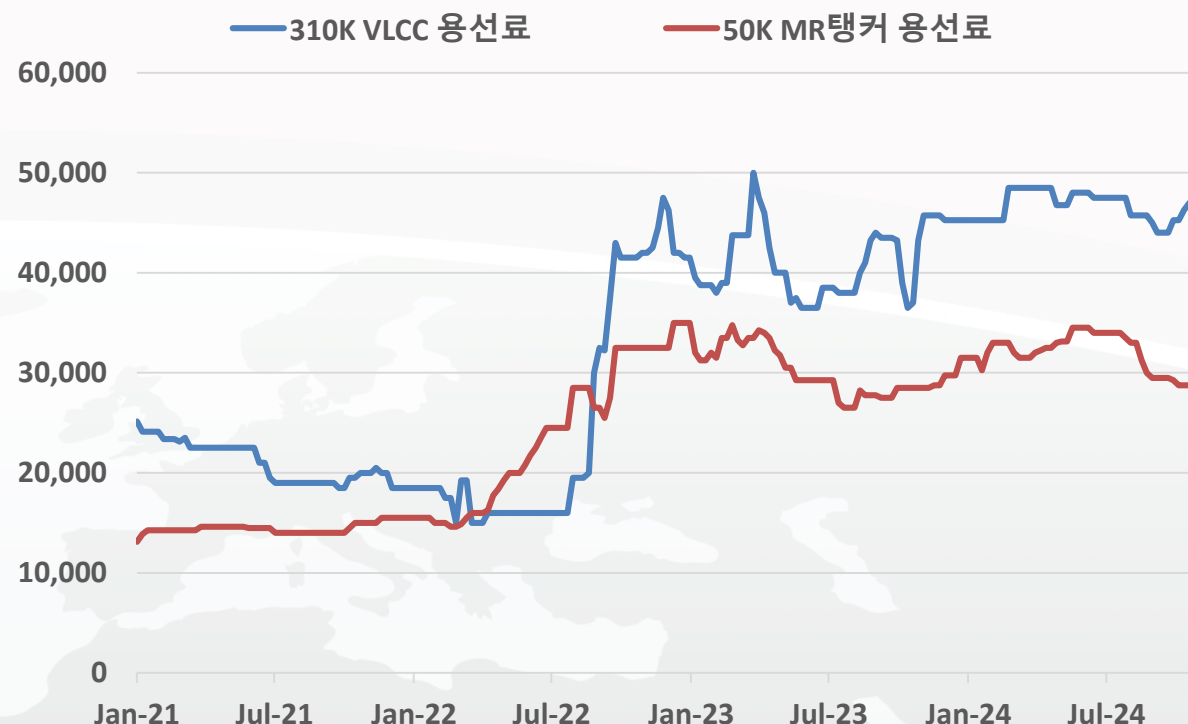
- 9월 드라이벌크선 운임은 미국산 곡물 수출 운송수요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 9월 운임은 파나마운하의 기능회복에 의한 약세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곡물운송 수요 등으로 양호하였으나, 10월에는 하락
 - 9월 BDI 평균은 1,965(전년동기 대비 +41.0%)을 기록하였고, 10월 3주차 BDI는 1,685(전년동기 대비 △17.8%)로 하락
- 9월 컨테이너선 시황은 많은 신조선 인도가 지속되며 7월 중순 이후 운임 하락추세이나 양호한 수준 유지
 - 홍해사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도 SCFI가 2,000선을 상회함
 - 9월 평균 SCFI는 2,435(전년동기 대비 +154.7%) 기록, 10월 3주차 SCFI는 2,062(전년동기 대비 +124.7%)
- 9월 탱커 시황은 러-우 전쟁 이후의 고점에서 용선료가 하락하는 조정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양호한 수준 유지
 - 9월 유조선 및 제품선 용선료는 전쟁 영향에 의한 과도한 상승으로 6월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9월 평균 1년 정기용선료 310K VLCC는 1일당 44,313달러(전월 대비 △2.8%), 50K MR탱커는 29,438달러(전월 대비 △ 6.1%)

BDI 및 SCFI 추이 (지수)



자료 : Clarkson, Baltic Exchange, 상하이항운교역소

탱커 1년 정기용선료 추이 (\$/day)



자료 : Clarkson

석유제품 · 석유화학

■ 9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수출은 유가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7.8%, 0.6% 감소

- (석유제품) '24년 9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동반하락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한 40.4억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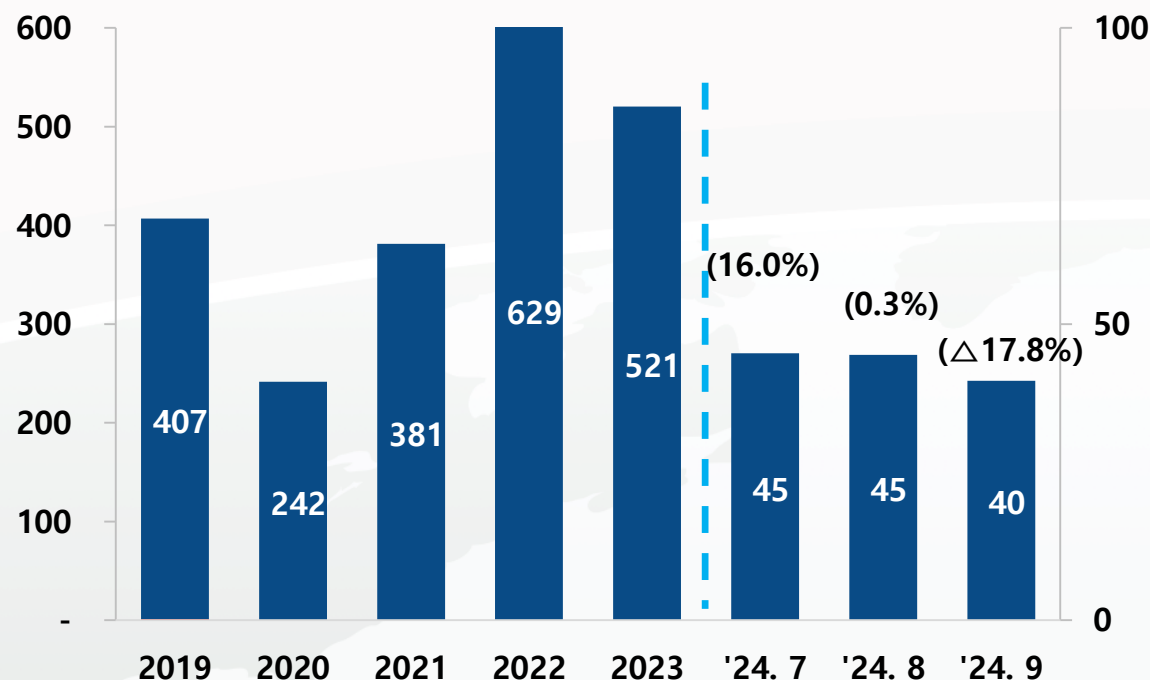
* 국제 휘발유/경유(\$/bbl): ('24.7) 92.1 → ('24.8) 84.7 → ('24.9) 78.5 / ('24.7) 99.3 → ('24.8) 92.2 → ('24.9) 84.3

- (석유화학) '24년 9월 수출액은 유가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가 전년동월 대비 4.2% 하락했으나, 국내 업체들의 신증설 설비가동 확대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과 보합수준인 38.4억 달러 기록

* 석유화학 제품 수출단가(\$/톤): ('23.9) 1,223(△9.8%) → ('24.9^e) 1,171(△4.2%)

석유제품 수출액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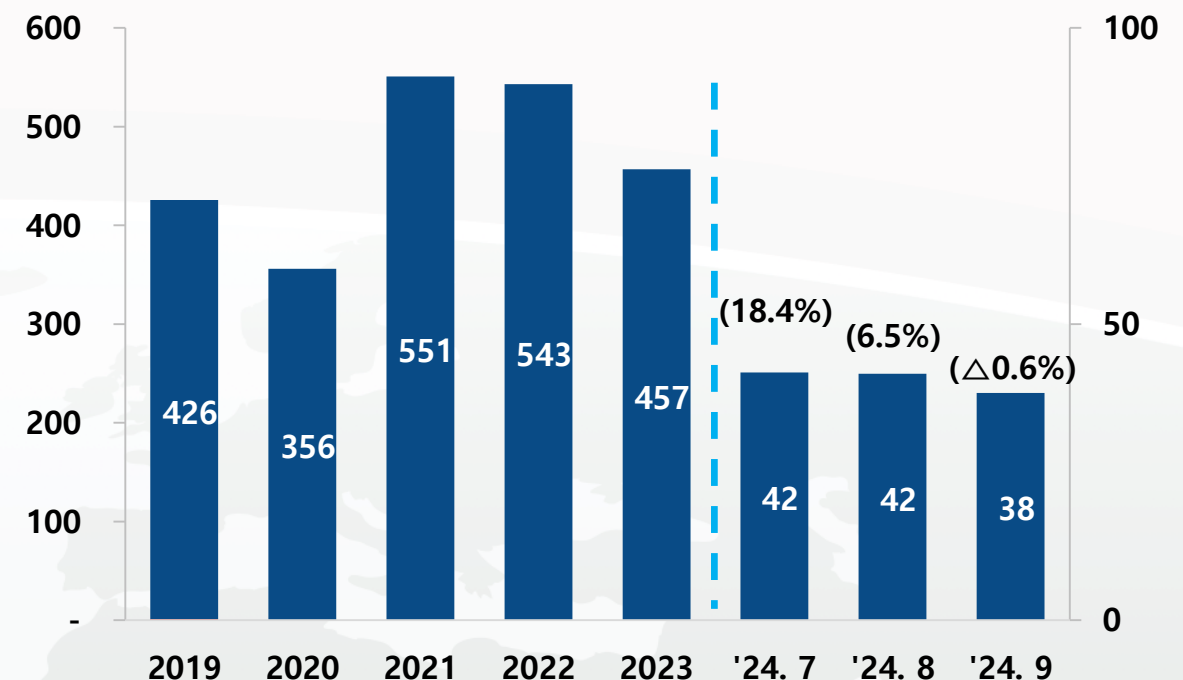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 수출액 (억 달러)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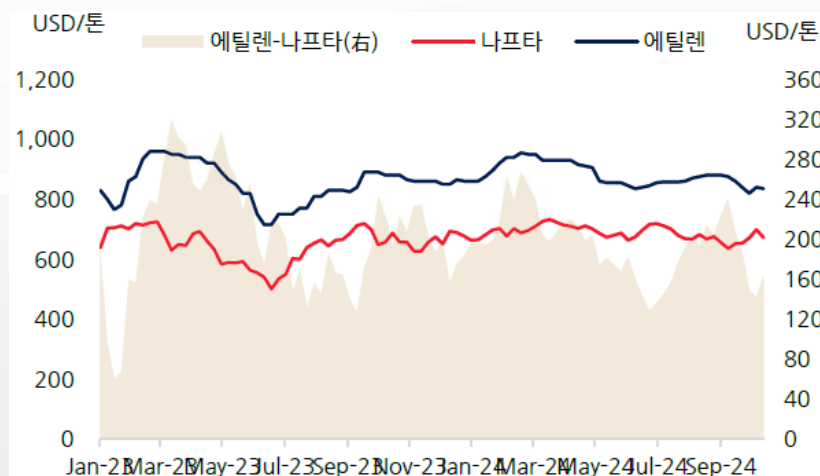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 기초유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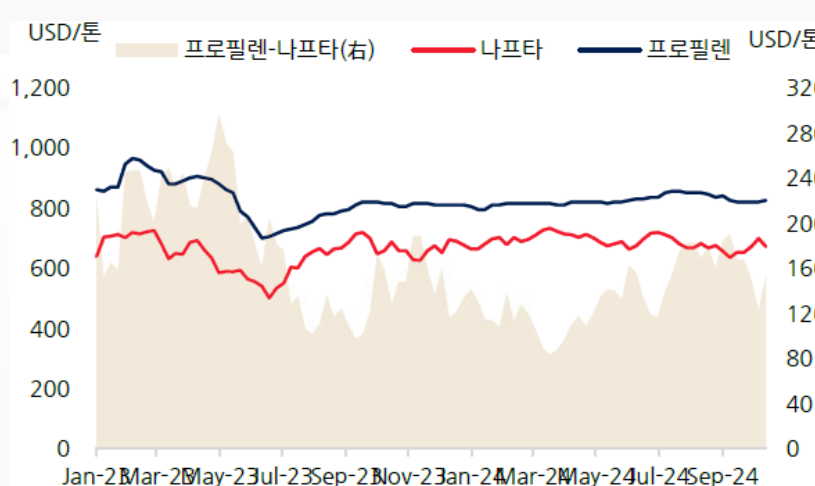
■ 에틸렌 가격은 수급에 따라 등반락, 프로필렌은 공급제한으로 보합, 부타디엔은 공급확대로 하락

- **(에틸렌) 풍부한 공급 대비 부진한 수요에 따른 가격하락 이후 시장심리 개선 등으로 10월초 소폭 상승**(\$825/톤, 10/16)
 - 아시아 역내 크래커 설비들이 평균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공급이 풍부한 반면 다운스트림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유가하락 영향으로 9월말까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후 10월초 중국 시장심리 개선에 따른 수요증가로 소폭 상승
- **(프로필렌) 단기적인 수급 타이트로 강보합, 다만 유가하락과 공급증가 전망 등으로 가격 상승폭 제한**(\$825/톤, 10/16)
 - 10월 중순 중국 동부지역의 공급 제한과 일부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며 가격이 상승압력을 받았으나, 유가하락과 더불어 PDH 설비 재가동에 따른 프로필렌 공급 확대 전망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
- **(부타디엔) 10월초 재고 비축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이후 10월 중순 공급 확대로 하락**(\$1,530/톤, 10/17)
 - 10월 중순 다운스트림 부문인 고무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 텐진의 신규설비 가동 개시 및 역외 물량 유입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며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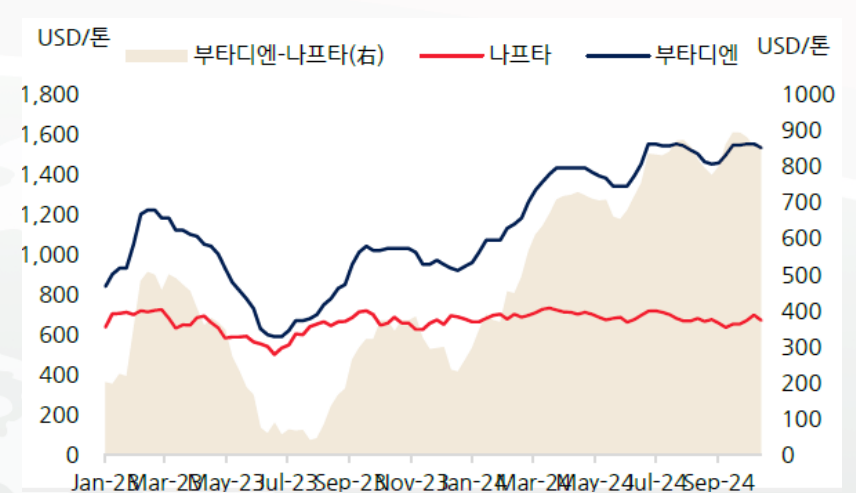
에틸렌 가격 추이



프로필렌 가격 추이



부타디엔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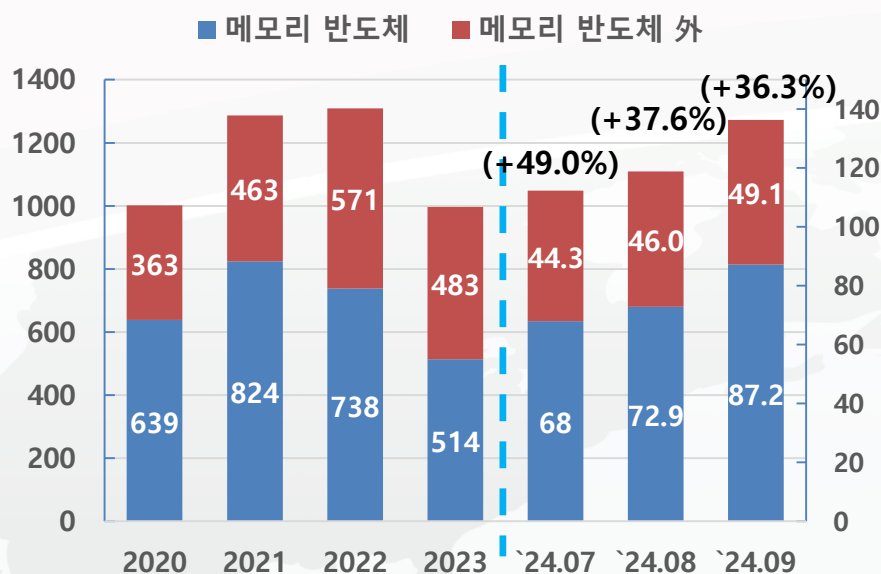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에틸렌 가격은 동북아 CFR, 프로필렌/부타디엔 가격은 한국 FOB, 나프타 가격은 일본 CFR)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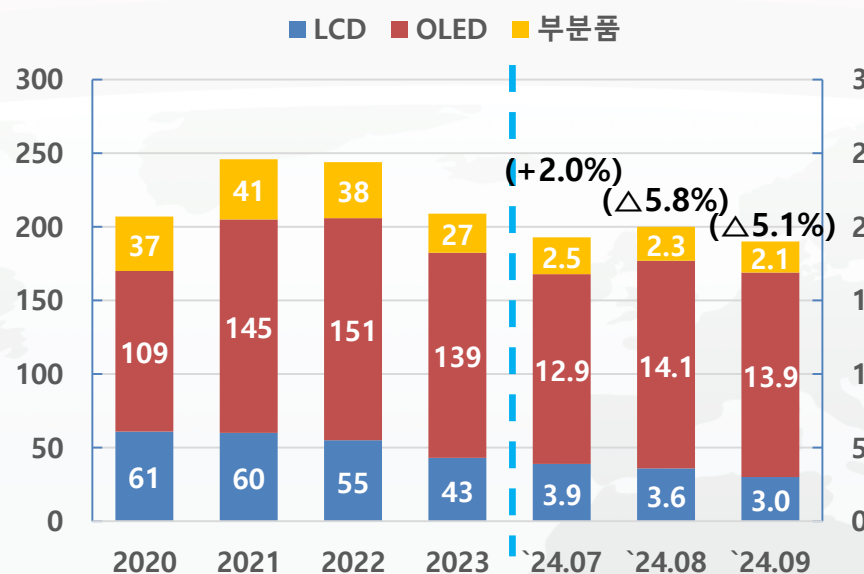
■ 9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6.3% 증가, 디스플레이 5.1% 감소, 통신기기 17.6% 증가

- 9월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60.7%), 메모리外(+7.4%)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36.3% 증가한 136.3억 달러 기록
 - (메모리) 9월 메모리 수출(87.2억 달러),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관련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60.7% 증가
 - (메모리外) 9월 메모리外 반도체 수출(49.1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수요지속으로 9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 9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호조였던 전년동월 수출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한 19.0억 달러 기록
 - (LCD) 9월 LCD 수출(3.0억 달러),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주요국 수출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9.4% 감소
 - (OLED) 9월 OLED 수출(13.9억 달러),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10.8억 달러, △12.8%)하며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
- 9월 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한 18.7억 달러 기록
 - (휴대폰) 9월 휴대폰 수출(17.1억 달러)은 부분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31.2%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25.1% 증가
 - *9월 부분품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생산기지로의 수출이 동반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인 14.4억달러 기록
 - (통신장비) 9월 통신장비 수출(1.6억 달러), 중국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선통신품목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28.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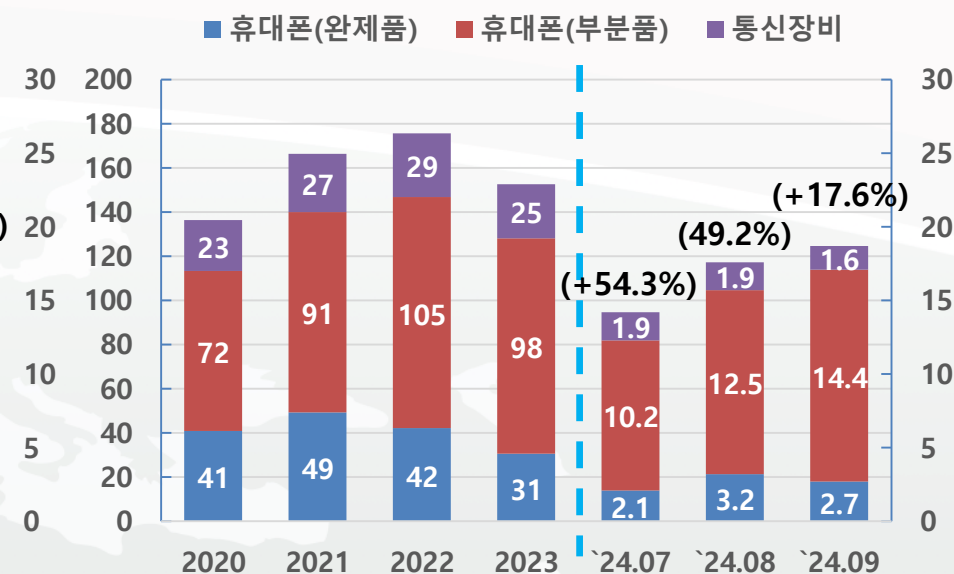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액 (억 달러)



통신기기 수출액 (억 달러)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9월 주요 변동 핵심광물은 코발트·흑연·리튬 등, GVC 주요 키워드는 철강·중국·탄소 등

- (핵심광물 수입 변화) 이차전지 수요 둔화로 코발트 등 관련 원자재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 (코발트)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둔화로 인한 양극재 수출감소로 9월 코발트 수입량은 전년동월 대비 30.8% 감소
 - * '24년 9월 국내 전구체·양극재(HS 284190)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4.8% 감소한 4.5억 달러 기록
 - (흑연) 9월 흑연 수입량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수입량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9.8% 감소한 5,865톤 기록
 - (리튬)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통해 공급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9월 수입량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 (GVC 주요 이슈) 9월 주요 공급망 관련 키워드는 철강, 중국, 탄소 등으로 나타남
 - (정부) (美) IPEF 공급망 위원회를 개최, 상원에서 역내 탄소세·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中) 탄소배출권 거래 적용범위를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으로 확장 예정; (日) 中産철강 등 제품의 우회수출도 반덤핑 관세 대상으로 포함 예정
 - (기업) (中) 중국산 철강 저가공세로 칠레 최대 철강사 CSH 운영 중단; (日) '24년 2분기 對中 설비투자액 16% 감소, 탈중국 가속화 (印尼) 한국, 중국, 대만 등 3개국에 대한 석도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연장 결정

월간 국내 핵심광물 수입 현황 (중량 기준)										
핵심광물	천연흑연	인조흑연	산화,수산화 코발트	황산니켈	산화,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탄산망간	희토류 (세륨화합물)	기타희토류	영구자석
총수입중량 (단위: 톤) (전년동월 대비 증감)	2,282 (△14.3%)	3,583 (△6.7%)	245 (△30.8%)	1,292 (△1.7%)	12,056 (+25.3%)	3,043 (△32.1%)	1,946 (+15.3%)	120 (+22.4%)	70 (+49.1%)	534 (△17.9%)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										
아르헨티나	0.0	0.0	0.0	0.0	0.0	18.9	0.0	0.0	0.0	0.0
벨기에	0.0	0.0	28.9	0.7	0.0	0.0	0.0	0.0	0.0	0.0
칠레	0.0	0.0	0.0	0.0	17.4	80.8	0.0	0.0	0.0	0.0
중국	98.2	83.9	68.1	0.0	78.7	0.1	83.2	42.4	84.8	84.0
핀란드	0.0	0.0	3.0	36.7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0	0.0	0.0	0.0	0.0	0.0	0.0	27.9	0.4	0.0
인도(인디아)	0.0	0.2	0.0	27.6	0.0	0.0	0.0	16.7	0.0	0.0
일본	0.2	9.2	0.0	2.3	0.0	0.0	4.3	7.6	14.2	1.6
필리핀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1
대만	0.0	0.0	0.0	0.0	0.0	0.0	6.6	5.3	0.0	0.0
남아프리카 공화국	0.0	0.0	0.0	32.7	0.0	0.0	0.0	0.0	0.0	0.0